

남성의 생식기계질환

리브플랜



종류

특징

전립선은 방광의 아래 부분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전립선은 근처에 있는 정낭과 함께 사정액의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전립선은 젊은 남성의 경우 후두 크기 정도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집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 체크리스트

- 평소와 달리 소변 횟수가 많아졌다.
 - 잔뇨감이 자주 느껴진다.
 -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온다.
 - 요도 끝이 간지럽고 가려움이 느껴진다.
 - 발기부전, 성욕 감퇴 등 성 기능 문제를 겪고 있다.
- 위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전립선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전립선 내부를 지나가는 요도를 눌러서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노화와 남성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며 최근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연령, 인종, 가족력이며 호르몬, 식이습관, 체중체와 같은 화학약품 등도 발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고환염 및 부고환염은 바이러스, 결핵, 세균 등에 의한 고환 및 부고환의 염증성 감염을 말합니다. 부고환염은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고환염은 대부분 부고환염과 함께 발생합니다. 고환염과 부고환염의 증상은 유사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크기 증가, 부종, 고열, 전신 피로, 소변이 탁해지기도 합니다. 촉진 시에는 매우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심할 경우 걸음을 제대로 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자와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생식기관인 고환에 생긴 악성종양을 말하며 주로 10세 이전의 소아와 20~40세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갑박고환, 과거 병력, 가족력, 외상, 산모가 임신 중 여성호르몬 투여, 고환 위축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 볼거리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환이 통증 없이 서서히 커져 단단한 무통성 결절로 만져지며, 약 10%에서는 고환 내 출혈이나 경색으로 급성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성매개 감염병

성매개감염병은 일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을 말하며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 이외에도 일부의 질환에서는 혈액이나 주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은 콘돔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성병의 대표적인 증상

- 1) 성기 주위가 가렵거나 따갑고 분비물이 많아진다.
- 2) 불쾌한 냄새가 난다.
- 3)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빠질 듯이 아프다.
- 4) 미열이나 몸살 기운이 있다.
- 5) 입 속에 하얀 개풀과 궤양이 생긴다.
- 6)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 7) 물집과 사마귀가 항문까지 번진다.
- 8)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無증상)

■ 성매개감염병 예방하려면?

성병에 감염 시 상대방 파트너에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고, 만약 증상이 있다면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딜로마의 경우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성매개감염병의 종류와 특징

종류

특징



에이즈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HIV에 감염돼 체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사망까지 이르는 전염병으로 감염자외의 성접촉, 혈액, 주사침 등으로 감염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열, 몸살, 구토, 설사, 붉은 반점, 두드러기, 체중감소, 면역결핍으로 인한 감염 등이 있습니다.



헤르페스 2형

주로 성접촉시 직접적인 피부 접촉(구강, 요도, 성기)의 노출을 통해 전염되며, 주로 사람의 성기, 엉덩이 주변에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면서 상처가 생기는데 통증과 열감, 근육통,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며, 자주 재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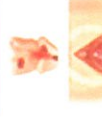
콘딜로마 (성기 사마귀)

성접촉으로 HPV 바이러스 중 6, 11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도어 생식기와 항문 주변에 사마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마귀가 점차 넓게 퍼지는데, 치료는 전기소작 등으로 사마귀를 일일이 다 제거해야 합니다. HPV 6, 11번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임질

성접촉으로 전염되며 성기 점막에 감염되어 농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여자의 경우 빈뇨, 통증, 분비물 증가 등이 나타나며, 치료하지 않으면 난관염이나 골반염이 되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요도의 불쾌감, 소변시 통증, 요도 끝이 부어오르거나 고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 파트너와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매독

성접촉, 혈액, 주사침으로 전염됩니다. 굳이 침투한 곳에 10일~3개월 후, 궤양이 생긴 후 3~6주 후 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발진, 탈모가 생긴 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장병, 뇌에 침범하여 마비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독에 걸린 산모의 태어는 선천성 매독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성접촉으로 전염되며, 최근에 감염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궁과 골반에 염증을 일으켜 골반염과 난임까지 될 수 있으며, 남성도 요도염이 결핍 확률이 높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 파트너와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사면발이

성기 주변 음모에 사는 '이'의 일종으로,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나, 수건이나 침구류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 증상은 가려움이며 음모에서 사면발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 파트너와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트리코모나스

성접촉으로 감염되며 전염력이 강해 성관계 한번으로 70% 이상이 감염됩니다. 여성은 질이 가렵고, 따가우며, 소변 시 불편감, 냄새가 나며, 가품이 섞인 푸르스름한 방이 나옵니다. 남성의 경우 무증상이 많으며, 요도염 증세로 배뇨나 사정 시 요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염력이 강하므로 성 파트너와 같이 항원충제로 치료해야 합니다.